

명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에 관한 연구

신 수 송

1. 서 론

독일어에서 명사구에 논항이 등장하는 경우로는 주로 후철 -er, -ling 등과 -ung, -en, -Ø 등에 의한 명사화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문장에 대응되는 의미구조를 갖는다. 논항의 경우 명사구 상에서 기저동사의 통사적 보족어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 der Besteiger des Bergs, Besteigung/Besteigen des Bergs의 des Bergs와, 양화사나 관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즉 총칭적(generisch) 의미만을 갖는 한정어로서의 예를 들어 Bergbesteiger, Bergbesteigung에서 볼 수 있는 Berg 등이 있다. -er-명사화의 경우 후철-er의 기능은 기저동사의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논항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지는 일종의 변항으로 볼 수 있으며 -ung/-en-명사화에 있어서의 이들 후철의 기능은 사건을 지칭하는 동사의 의미를 추상적인 상태, 진행, 행위 혹은 행위의 결과 또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의 의미로 전환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명사구가 문장의 축약으로 간주될 정도로 문장의 정보가 담겨있는 -ung-명사화에 국한해서 이 명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이 시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명사화의 문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2. 사태 변화를 지칭하는 기저동사

2.1. 동사의미의 기본적인 분류

독일어 동사들로부터 명사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동사를 그 어휘적인 의미의 특성에 따라 상태(Zustand), 진행(Prozess) 및 변화(Transition)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¹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이러한 분류의 타당성을 논

¹ 동사의 의미를 상태, 동작/진행 및 (사태변화의) 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은 Pustejovsky (1991a)와 Klein(1994)에 근거한 것이다.

의하여 보자.

- (1) a. Das Buch lag auf dem Tisch.
- b. Hans tanzte.
- c. Der Mann erblindete.

(1a)의 *liegen*은 상태를 지칭하는 동사로서 *auf dem Tisch*라는 위치적으로 한정된 장소에 어떤 책이라는 대상이 놓여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 *t*에서 이 사건이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을 의미한다. (2)의 *tanzen*은 동작을 지칭하는 동사로서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 *t*에서 Hans라는 행위자의 동질(homogen)의 동작이 이 시간구간의 매 하위시간구간 *t*에서 되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3)의 *erblinden*은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에 *der Mann*이라는 대상이 눈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태변화를 가리킨다. 이 세가지 동사들은 Pustejovsky의 분류에 따라 *liegen*을 상태동사, *tanzen*을 동작동사 그리고 *erblinden*을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동사라고 칭하려 한다. 상태동사와 동작동사의 의미는 이들이 지칭하는 언어외적 사태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의미론 연구에 큰 문제를 제시하지 않지만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동사의 의미는 언어외적인 사태변화 그 자체만큼 다양하고 언어학적으로 흥미있는 현상들을 제시한다. 독일어에서 사태변화는 주로 전철동사에 의해 지칭된다는 사실이 신수송 (1999, 2000a)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전철동사들의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이들이 취하는 논항의 구조가 시간축 상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2.2. 전철자동사의 시간성

명사화 기술을 위해 기저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여 그 어휘항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저동사가 전철자동사인 것들 중에 *erglimmen*, *verglitschern*, *erlahmen*을 대표적으로 택하여 그 어휘항목을 기술한 것이다.²

(1) *erglimmen*

- (i) 음성적 정보: ...
- (ii) 범주적 정보: ...
- (iii) 어휘내용:
-glimmen(*x*, *t*₁) & glimmen(*x*, *t*_n)

² 여기서 제시된 어휘항목의 사전적인 기술방법은 Klein(1999)에서 논의된 *erblühen*, *erfrischen*, *schenken* 등 어휘항목을 기술한 일반론을 따른 것이다.

(2) vergletschern

- (i) 음성적 정보: ...
- (ii) 범주적 정보: ...
- (iii) 어휘내용:
-Gletscher(x, t₁) & Gletscher(x, t_n)

(3) erlahmen

- (i) 음성적 정보: ...
- (ii) 범주적 정보: ...
- (iii) 어휘내용:
-lahm(x, t₁) & lahm(x, t_n)

이때 i, n은 정수를 나타내고 1<i<n의 조건을 갖는다.

이제 차례로 이들 전철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여 보자. 먼저 erglimmen의 어휘항목의 내용 중 음성적 정보나 범주적 정보를 생략하고 어휘내용만을 고찰해 보면, erglim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은 시간구간 t를 점유하고 이 t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₁,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n,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하위시간구간 t_i로 구성된다. 문제는 t_i에서 논항이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하는데 있다. 신수송(1999: 349ff)에서 이 시간구간은 통사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시간구간 t_i가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시간구간을 확정 짓는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부사와 전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4) a. Das erste Tageslicht erglomm.
- b. Das erste Tageslicht erglomm *eine Stunde lang.
- c. Das erste Tageslicht erglomm ^(*)in einer Stunde.

(4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erglimmen에 의해 기술되는 사태가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이 사태는 시간연장부사 in einer Stunde라는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만일 <das erste Tageslicht erglom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한시간 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문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직관과는 대립되게 언어가 세상 사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이제 erglimmen이 지칭하는 변화의 사건을 시간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³

³ 전철동사가 사태변화를 지칭할 경우 이 사태변화가 점유하는 시간구간은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축 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5) \quad \begin{array}{c} \text{--- } t_1 \text{ } t_i \text{ } t_n \text{ ---} \\ \text{- } \varphi_1 \qquad \qquad \varphi_i \qquad \qquad \varphi_n \\ \varphi = \text{glimmen}(x) \end{array}$$

도표 (5)에서 *erglimmen*에 의해 지칭되는 상태변화는 시간구간 t 를 점유하고 이 t 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1 ,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n ,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상태변화가 전개되는 하위 시간구간 t_i 로 구성된다. 그리고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의 직관에 따라 요구되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은 통사적으로 시간부사에 의해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있는 사태 φ_i 가 초기상태의 사태 φ_1 과 같은 지 아니면 결과상태의 사태 φ_n 와 같은 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햇빛이 빛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로 *glimmen*(x)이라는 상황이 형성되므로 φ_i 가 φ_n 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우리는 *erglimmen*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6) \quad \text{erglimmen}' := \text{ferglimmen}(t_1) + \text{ferglimmen}(t_2) + \dots + \text{ferglimmen}(t_{n-1}) + \text{ferglimmen}(t_n)$$

즉 *erglimmen*의 의미는 시간구간 t 에서의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erglimmen*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이제 t_i 에서 *erglimmen*의 함수 값은 *erglimmen*에 의해 지칭되는 상태변화의 과정 φ_i 를 φ_n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7) \quad \begin{array}{l} \text{ferglimmen}(t_1) = \text{-glimmen}(x) \\ \qquad \qquad \qquad \vdots \\ \text{ferglimmen}(t_i) = \text{glimmen}(x) \\ \qquad \qquad \qquad \vdots \\ \text{ferglimmen}(t_{n-1}) = \text{glimmen}(x) \\ \text{ferglimmen}(t_n) = \text{glimmen}(x) \end{array}$$

즉 초기상태 t_1 에서부터 시작해서 t_i 에 이르기까지 *erglimmen*의 함수 값은 대상 x 가 *glimmen*하는 속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t_i 에서부터 t_n 에 이르기까지의 *erglimmen*의 함수 값은 대상 x 가 *glimmen*하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기술된

주장은 이미 신수송(1999 : 353ff)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결과상태의 *glimmen(x)*이 지칭하는 사태가 초기상태의 사태에서 t_1 를 제외하고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사태 변화의 결과라고 할만한 하나의 결과상태를 얻는 것이 아니라 *x*가 *glimmen*한다고 하는 동일한 진리치를 갖는 다수의 결과상태를 얻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erglimmen*의 의미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다.

*erglimmen*에 관한 이러한 의미기술은 자동사를 어간으로 하는 예를 들어 *erbeben*, *erglühn*, *erschallen* 등과 같은 *er-*전철동사, *aufbrüllen*, *aufjauchzen*, *aufkreischen* 등과 같은 *auf-*전철동사, *anbrennen*, *anfahen*, *anlaufen* 등과 같은 *an-*전철동사 *losarbeiten*, *loslachen*, *lossingen*등과 같은 *los-*전철동사 등에 해당된다.

이제 이러한 전철동사들로부터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를 유도할 경우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비문법적인 **Erglimmung*, **Erhebung*, **Erglühung*, **Erschallung*과 **Aufbrüllung*, **Aufjauchzung*, **Aufkreischung*과 **Anbrennung*, **Anfahung*, **Anlaufung* 및 **Losarbeitung*, **Loslachung*, **Lossingung* 등등 *-ung-*조어가 유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⁴

다음으로 어간이 명사인 경우 *vergletschern*의 어휘내용을 시간성과 관련하여 기술하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 (8) a. Der Berg vergletscherte langsam.
- b. Der Berg vergletscherte **zwanzigtausend Jahre lang*
- c. Der Berg vergletscherte (**in zwanzigtausend Jahren*).

(8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vergletschern*에 의해 기술되는 사태도 우리의 직관에 따를 것 같으면 지나긴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erglimmen*의 경우와 같이 *zweitausend Jahre lang*이 지칭하는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태는 시간연장 부사 *in zweitausend Jahren*에 의해 지칭되는 특정한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만일 <der Berg vergletscher->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2만년 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문법적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vergletscher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은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제 *vergletscher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⁴ 동사로부터 *-ung-*조어를 유도하기 위한 통사의미론상의 제약은 신수승(2000a), 'Some Derivational Conditions on the German *-ung-*nominals'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9) \quad \begin{array}{c} \text{----- } t_1 \text{ } t_i \text{ } t_n \text{ -----} \\ \quad \quad \quad -\varphi_1 \quad \quad \quad -\varphi_i \quad \quad \quad \varphi_n \\ \varphi = \text{Gletscher}(x) \end{array}$$

vergletschern이 지칭하는 변화 과정도 비록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매우 긴 시간을 요구하겠지만 이 시간은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시간 축 상에서 통사적으로 특정한 시간구간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변화과정은 시간구간 t 를 점유하고 이 t 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1 ,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n ,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가 전개되는 하위 시간구간 t_i 로 구성된다. 그리고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의 직관에 따라 요구되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나타내는 것은 erglimmen의 경우에서와 같다. 이 부분은 통사적으로 시간부사에 의해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있는 사태 φ_i 가 초기상태의 사태 φ_1 과 같은 지 아니면 결과상태의 사태 φ_n 와 같은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vergletschern이 지칭하는 결과상태는 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이 이 동사의 어간 Gletscher가 지칭하는 속성을 얻는 경우로서 이는 분명히 Gletscher가 아닌 이전 상태와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과정이 시간 축 상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t_i 에서의 사태는 초기상태와 동일한 $-\varphi$ 와 같은 것을 추론하게 된다. 이제 vergletschern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기술하여 보자.

$$(10) \text{ vergletschern}' := \text{fvergletschern}(t_1) + \text{fvergletschern}(t_2) + \dots + \text{fvergletschern}(t_{n-1}) + \text{fvergletschern}(t_n)$$

vergletschern의 의미는 erglimmen의 의미기술과 같이 시간구간 t 에서의 사태 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vergletschern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을 논항으로 하는 함수 값은 vergletscher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과정 φ_i 를 φ_1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begin{array}{l} \text{fvergletschern}(t_1) = -\text{Gletscher}(x) \\ \text{fvergletschern}(t_2) = -\text{Gletscher}(x) \\ \quad \quad \quad \vdots \\ \quad \quad \quad \vdots \\ \text{fvergletschern}(t_{n-1}) = -\text{Gletscher}(x) \\ \text{fvergletschern}(t_n) = \text{Gletscher}(x) \end{array}$$

(11)에서 Gletscher(x)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이전상태는 t_2 에서부터 t_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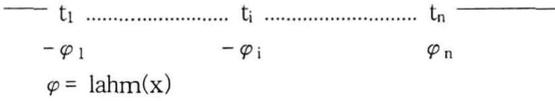
에 이르기까지의 Gletscher의 함수 값이 대상 x 가 Gletscher의 속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기술된다. 즉 결과상태를 제외하고 우리는 t_1 에서부터 t_{n-1} 에 이르기까지의 vergletschern의 함수 값이 대상 x 가 Gletscher의 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결과상태의 Gletscher(x)가 지칭하는 사태를 제외하고 초기상태와 변화과정에 있는 vergletschern의 의미기술인 함수 값이 모두 -Gletscher(x)로서 표현된다. 따라서 결과상태와 그 이전상태는 대상 논항이 Gletscher의 속성을 갖고 있는가 혹은 갖고 있지 않는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사태변화의 결과라고 할만한 하나의 결과상태를 얻게 되고 x 가 Gletscher의 속성을 갖는 것과 아직 갖지 못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vergletschern의 의미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다. 이러한 기술은 명사를 어간으로 하는 예를 들어 verdampfen, vereisen, verkohlen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 abblättern, abbröckeln, abfasern 등과 같은 ab-전철동사, aufsplittern, aufgliedern, aufteilen 등과 같은 auf-전철동사, zerbröckeln, zerfasern, zerfetzen 등과 같은 zer-전철동사등과 같은 대부분의 전철동사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는 예외 없이 모두 문법적인 Verdampfung, Vereisung, Verkohlung과 Ablätterung, Abbröckelung, Abfaserung과 Aufsplitterung, Aufgliederung, Aufteilung 및 Zerbröckelung, *Zerfaserung, *Zerfetzung 등등 -ung- 조어인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erlahmen의 어휘내용을 시간성과 관련하여 기술하여 보자.

- (12) a. Der Arm erlahmte.
 b. Der Arm erlahmte *eine Woche lang.
 c. Der Arm erlahmte ^(*)in einer Woche.

erlahmen에 의해 기술되는 사태도 (12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erglimmen, vergletschern과 같이 eine Wochen lang과 같은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부사 in zwei Wochen과의 결합이 비문법적인 경우로 erlah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역시 특정한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der Arm erlah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1 주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태변화의 시간구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erglimmen, vergletscher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과 같이 erlah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도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erlahmen에 의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3)



erlahmen이 지칭하는 변화과정이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시간 축 상에서 특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상적 시간구간에서의 사태는 다시금 초기상태와 같거나 결과상태와 같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앞서본 erglimmen, vergletschern의 경우에서와 같다. erlahmen이 지칭하는 결과상태는 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이 이 동사의 형용사 어간 lahm이 지칭하는 속성을 얻는 경우로서 이는 Gletscher의 경우와 같이 lahm이 아닌 이전 상태와 구분된다. 따라서 t_i 에서의 사태는 초기상태와 동일한 $-\varphi$ 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금 erlahmen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4) \text{erlahmen}' := \text{ferlahmen}(t_1) + \text{ferlahmen}(t_2) + \dots + \text{ferlahmen}(t_{n-1}) + \text{ferlahmen}(t_n)$$

각각의 하위 시간구간에서의 erlahmen의 의미는 vergletschern의 의미기술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구간 t 에서의 사태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erlahmen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을 논항으로하는 함수 값은 정확히 erlah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과정 φ_i 를 φ_1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

(15)

- $\text{ferlahmen}(t_1) = -\text{lahm}(x)$
- $\text{ferlahmen}(t_2) = -\text{lahm}(x)$
- :
- :
- $\text{ferlahmen}(t_{n-1}) = -\text{lahm}(x)$
- $\text{ferlahmen}(t_n) = \text{lahm}(x)$

vergletschern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15)에서 lahm(x)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이전상태는 초기상태의 함수 값이 대상 x 가 lahm의 속성을 갖지 못한 것처럼 t_2 에서부터 t_n 에 이르기까지의 erlahmen의 함수 값도 대상 x 가 lahm의 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rlahmen의 의미기술은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예를 들어 verarmen, verblassen, verbleichen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 abflachen, abkühlen, abmatten 등과 같은 ab-전철동사, ausgären, ausreifen, austrocknen 등과 같은 aus-전철동사, erblinden, erstarren,

erstarken 등과 같은 er-전철동사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전철동사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는 예외 없이 모두 문법적인 Verarmung, Verblassung, Verbleichung과 Abflachung, Abkühlung, Abmattung과 Ausgärung, Ausreifung, Austrocknung 및 Erblindung, Ermüdung, Erstarkung 등등 -ung-조어인 것을 알 수 있다.

2.3. 전철타동사의 시간성

자동사와는 달리 타동사의 경우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은 사태의 원인 제 공자로서의 행위자(Agens)와 이 행위자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Gegenstand)을 논항으로 취한다. 이제 전철타동사 erarbeiten의 어휘항목을 기술하여보자.

(16) erarbeiten

(i) 음성적 정보: ...

(ii) 범주적 정보: ...

(iii) 어휘내용:

a. $ACTIV(x, t_1) \ \& \ -erarbeitet(y, t_1) \ \& \ erarbeitet(y, t_n)$

b. i, n 은 정수이고 $1 \leq i < n$ 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전철타동사 erarbeiten의 음성적 정보나 범주적 정보를 생략하고 어휘내용만을 고찰해 보면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은 시간구간 t 를 점유하고 이 t 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1 ,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_n ,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가 전개되는 하위 시간구간 t_i 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시간구간에서 행위자 논항과 대상논항과의 관계를 보면 t_1 에서는 행위자 x 가 활동을 시작하고 t_i 에서는 그 활동의 영향력이 대상 y 에게로 미치게 되며 t_n 에서는 대상 y 가 변함으로써 사태변화의 결과를 얻게된다. 이때 t_1 과 t_i 는 겹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행위자 x 의 활동과 그 활동의 영향력이 y 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동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t_n 에서 대상 y 의 속성이 erarbeiten의 과거분사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상태수동문과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문에서 행위자와 대상을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바로 사태변화의 결과인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다음의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하여보자.

(17) a. Die Frau erarbeitet die Studie.

b. Die Studie ist erarbeitet.

c. die erarbeitete Stud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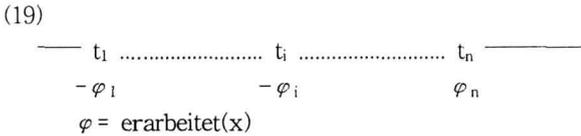
상태수동문 (17b)에서 그리고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문 (17c)에서 각각 erarbeitet

는 대상 die Studie가 사태변화의 결과로서 얻게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 절에서 본 전철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전철자동차 erarbeiten에서도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초기상태와 결과상태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 t_i 를 통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다음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하여보자.

- (18) a. Die Frau erarbeitete die Studie schon *zwei Jahre lang.
- b. Die Frau erarbeitete die Studie schon ^(*)in zwei Jahren.

erarbeiten이 지칭하는 사태는 (18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zwei Jahre lang과 같은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부사 in zwei Jahren과의 결합이 비문법적인 경우로 보아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역시 특정한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die Frau erarbeit- die Studie>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2년 후에 발생할 것이라면 이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이제 erarbeit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변화과정을 나타내는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시간축 상에서 특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구간에서의 사태는 앞서 본 전철자동차 erglimmen, vergletschern, erlahmen의 경우처럼 초기상태의 사태와 같거나 결과상태의 사태와 같을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erarbeiten이 지칭하는 결과상태는 변화에 참여하는 대상 논항이 과거분사 erarbeitet가 지칭하는 속성을 얻는 경우로서 이는 분명히 대상논항이 erarbeitet되지 않는 이전 상태와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과정이 시간 축 상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t_i 에서의 사태는 vergletschern과 erlahmen에서 본 바와 같이 초기상태와 동일한 $-\varphi$ 와 같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제 erarbeitet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기술하여보자.

$$(20) \text{erarbeiten}' : = \text{ferarbeiten}(t_1) + \text{ferarbeiten}(t_2) + \dots + \text{ferarbeiten}(t_{n-1}) + \text{erarbeiten}(t_n)$$

erarbeiten의 의미는 시간구간 t에서의 사태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vernarben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또한 이 각각의 하

위시간구간을 논항으로하는 함수 값은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과정 φ_1 를 φ_1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begin{aligned}
 (21) \quad & \text{ferarbeiten}(t_1) = \text{-erarbeitet}(x) \\
 & \text{ferarbeiten}(t_2) = \text{-erarbeitet}(x) \\
 & \quad \vdots \\
 & \quad \vdots \\
 & \text{ferarbeiten}(t_{n-1}) = \text{-erarbeitet}(x) \\
 & \text{ferarbeiten}(t_n) = \text{erarbeitet}(x)
 \end{aligned}$$

(21)에서 erarbeitet(x)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이전상태는 t_2 에서부터 t_n 에 이르기까지의 erarbeiten의 함수 값이 대상 x가 과거분사 erarbeitet로 기술되는 속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기술된다. 이 처럼 행위자인 논항과 대상인 논항을 취하는 전철타동사들은 예를 들어 erbaun, erforschen, erlernen 등과 같은 er-전철동사, verändern, verarbeiten, verbinden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 besteigen, behindern, beliefern 등과 같은 be-전철동사, zerlegen, zerreiben, zerstreuen 등과 같은 zer-전철동사 등 및 entbinden, entfalten, entladen 등과 같은 ent-전철동사 대부분의 비분리전철동사들과 다수의 분리전철동사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는 다음과 같이 모두 예외 없이 문법적이다: Erbauung, Erforschung, Erlernung 등과 같은 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Veränderung, Verarbeitung, Verbindung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Besteigung, Behinderung, Belieferung 등과 같은 be-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Zerlegung, Zerreibung, Zerstreung 등과 같은 zer-전철동사 및 Entbindung, Entfaltung, Entladung 등과 같은 ent-전철동사들로부터 유도된 명사.

그러나 기저동사가 행위자 논항과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경우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g-조어의 유도가 불가능하다.

- (22) a. Tränen benässen sein Gesicht.
 b. Sein Gesicht ist mit Tränen benäßt.
 c. sein mit Tränen benäßtes Gesicht
 d. *Benässung seines Gesichts
- (23) a. Autos befahren diese Strecke sehr stark.
 b. Diese Strecke ist sehr stark befahren.
 c. diese sehr stark befahrene Strecke
 d. *Befahrung dieser Strecke

주어가 행위자 논항이 아닌 전철동사들은 그밖에도 *befallen*, *beglänzen*, *belieben*, *beruhen*, *besagen*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상역의 논항을 주어로 취하며, *bedürfen*의 경우는 수혜자의 의미역('Benefactor')을 논항으로 취하며 *befühlen*, *bekennen* 따위는 경험주역('Experiencer')을 논항으로 취한다. 이들로부터 유도된 *-ung*-조어를 보면 **Befallung*, **Beglänzung*, **Beliebung*, **Beruhung*, **Besagung* 등과 같이 모두 비문법적이며 **Bedürfung*과 **Beführung*, **Bekennung*등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명사화에 있어서 자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타동사의 경우 행위자의 전제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

앞 절에서 우리는 전철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시간구간은 통사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 추상적인 시간구간에서의 사태변화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 결과상태의 사태와 같고 어간이 명사 혹은 형용사인 경우 초기상태의 사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유도된 추론의 타당성을, 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속성을 적절히 기술함으로써 입증해 보려고 한다. 먼저 도표 (17)을 보면 초기상태로부터 일정한 변화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즉 *glimmen(x)*가 지칭하는 상태를 값으로 하는 함수는 여러개로 나타나 있다. t_1 에서 t_n 에 이르는 시간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ferglimmen*의 값은 *glimmen(x)*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지칭하는 진리치가 모두 같다고 하더라도 매 하위시간구간에서 논항이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초기상태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다가 환하게 빛나게 되기까지 '빛이 나다' 라고 하는 사태들은 우리의 직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구간 t 에서 논항 x 가 갖는 속성을 P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24) \quad \begin{array}{c} \textit{glimmen}(x, t) \\ \diagdown \quad \diagup \\ P_1(x, t_1), P_1(x, t_2), P_1(x, t_3), \dots, P_1(x, t_n)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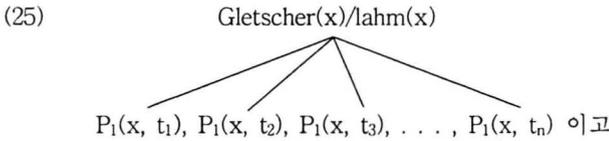
(i) i, j, n 은 정수이며, $t_i, t_j \in t$ 이고 t 는 x 가 *glimmen*의 속성을 갖게 되는 시간이다.

(ii) $P_i(x, t_i) \neq P_j(x, t_j)$ 이다

대상논항인 x 가 *glimmen*하는 시간구간에서 x 가 갖는 속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 예를 들어 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 초기상태를 제외하고 명제 $glimmen(x)$ 의 진리치는 참이 되지만 그러나 변화의 매 하위시간 구간에서 x 의 속성 P 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x 의 어느 속성 P 가 결과 상태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할 수 없게 한다. $erglimmen$ 유형의 동사들로부터 명사화가 비문법적이라면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기준은 변화와 변화의 결과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하위시간구간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자동사의 경우 시작과 끝이 열려져 있는 단순한 상태나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나 동작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은 시간구획을 확정짓는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부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며 이 점이 바로 지속성 동사가 갖는 어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결과상태가 단일하지 않는 경우와 대조되는 경우가 바로 $vergletschern$ 과 $erlahm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이다. 이들이 지칭하는 변화의 결과상태는 $Gletscher(x)$, $lahm(x)$ 로서 다음과 같이 시간축 상에 기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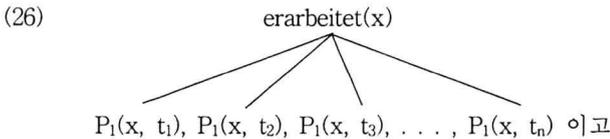
- (i) i, j, n 은 정수이며, $t_i, t_j \in t$ 이고 t 는 x 가 Gletscher 혹은 faul의 속성을 갖게 되는 시간을 말한다.
- (ii) $P_i(x, t_i) = P_j(x, t_j)$ 이다

$erglimmen$ 의 경우와는 달리 $vergletschern$, $erlahmen$ 등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대상논항 x 는 그 이전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즉 x 가 Gletscher가 아니고 그리고 faul이 아닌 결과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대상논항 x 가 일단 Gletscher 혹은 faul의 속성을 얻게되면 이러한 속성은 대상논항 자체가 소멸되거나 다른 속성을 얻게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시간구간을 t 라고 할 때 이 시간구간의 하위시간구간 t_i, t_j 에서 대상논항 x 가 갖는 속성 P_i, P_j 는 동일하다.⁶

⁵ 여기서 우리는 대상 논항 x 가 $glimmen$ 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가 $glimmen$ 의 속성을 갖는 사태변화가 아니라 사태변화의 이후시간을 문제삼고 있다. x 가 이후시간 t 에서 갖게 되는 $glimmen$ 의 속성은 항상 동질의 속성(homogene Eigenschaft)이긴 하되 동작이나 진행자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예문 (1b)의 $tanzen$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대상 x 가 t 라는 시간구간에서 춤을 춘다고 할 때 x 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된 t 의 하위시간에서 동일한 형식을 따르는 춤의 동작을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춤의 형식을 따르는 동작자체가 매 하위시간구간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erglimmen*의 결과상태가 *glimmen(x)*로 기술되고 *vergletschern, erlahmen*의 결과상태가 *Gletscher(x), lahm(x)*로 기술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전자가 전형적인 단일한 결과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이전상태와 구분되는 단일한 결과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전철동사들로부터 명사화의 유도가 가능한 경우가 어간이 명사와 형용사인 동사들로만 국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명사와 형용사가 갖는 공통된 시간적인 속성이 상태나 동작의 동작태를 갖는 자동사의 시간적 속성으로부터 구분되고 이는 명사화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앞 절에서 예로 든, 타동사 *erarbeit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결과상태와 대상 논항의 시간성에 관해 논의하여 보자. 도표 (26)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상논항 x 는 과거분사 *erarbeitet*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를 자신의 시간적인 속성으로 취하고 있다. (주석) 그리고 결과상태는 어간을 명사나 형용사로 하는 전철자동사와 같이 일정한 시간구간 동안 지속되는 시간성을 갖는다. 다음의 도표를 보자.



- (i) i, j, n 은 정수이며, $t_i, t_j \in t$ 이고 t 는 x 가 *erarbeitet*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속성을 갖는 시간을 말한다.
- (ii) $P_1(x, t_i) = P_1(x, t_j)$ 이다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대상논항 x 는 그 이전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결과상태, 즉 x 가 *erarbeitet*의 속성을 갖지 않았다가 *erarbeitet*의 속성을 갖는, 결과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대상논항 x 가 *erarbeitet*의 속성을 얻게 되면 이러한 속성은 *vergletschern, erlahmen*의 경우에서 본바와 같이 대상논항 자체가 소멸되거나 다른 속성을 얻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만일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시간구간을 t 라고 한다면 이 시간구간의 하위시간구간 t_i, t_j 에서 대상논항 x 가 갖는

⁶ 앞서 주석 (5)에서 예를 든 자동사 *glimmen, tanzen*과는 달리 어떤 대상 x 가 사태변화 이후시간 t 에서 *Gletscher*나 *lahm*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갖는 t 의 어떠한 하위 시간구간에서도 동일하며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이 이틀동안 마비되었다고 한다면 이틀이라는 시간구간에서 팔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동사가 지칭하는 동작의 속성은 명사나 형용사가 지칭하는 상태의 속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성 P_1, P_2 는 역시 *vergletschern, erlahmen*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절에서 우리는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기저동사로서의 전철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고 자동사인 경우를 다시금 어간이 자동사인 경우와 어간이 명사 혹은 동사인 경우로 나누어 이들 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에 있어서 논항이 갖게 되는 시간적인 속성을 논의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항의 시간적인 속성은 논항을 취하는 동사의 명사화 가능성과 문법성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절에서 명사화에 따른 논항의 속성과 이 속성의 변화를 기술할 것이다.

4. 명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

앞 절에서 제시한 명사나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전철 자동사들은 모두가 명사화의 가능성을 보인 동사들이다. 또한 이들 전철동사들의 논항은 어간인 명사나 형용사가 지칭하는 결과상태를 자신의 시간적인 변화의 속성으로 갖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기저동사의 명사화로 인해 논항 혹은 논항의 속성이 어떤 변화를 겪는 가를 고찰함으로써 체계적인 명사화의 의미기술을 시도하려고 한다. 먼저 어휘항목 *erglimmen, vergletschern, erlahmen*으로부터 명사화 된 다음의 예들을 가지고 시간축 상에서 그 의미를 기술하여 보자.

(27) a. Das Tageslicht erglomm.

b. *Erglimmung des Tageslicht

(28) a. Der Berg vergletschert.

b. Vergletscherung des Bergs

(29) a. Der Arm erlahmte.

b. Erlahmung des Arms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전철 자동사 *erglimmen*으로부터의 명사화 *Erglimmung*이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문법적이고 *vergletschern, erlahmen*으로부터의 명사화 *Vergletscherung, Erlahmung*이 (28b), (2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기저동사의 시간적인 속성과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의 조합에서 찾아야만 된다. 다시금 *erglimmen, vergletschern, erlahmen*과 이들로부터 유도된 문법적이거나 혹은 비문법적인 *Vergletscherung, Erlahmung*과 **Erglimmung*의 시간적인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 (30) a. *Das Tageslicht erglomm eine Stunde lang.
 b. *Die Erglimmung des Tageslicht dauerte eine Stunde lang.
 c. *Es dauerte eine Stunde bis zur Erglimmung des Tageslicht.
 d. *Die Erglimmung des Tageslicht begann vor einer Stunde und jetzt glimmt es vollständig.
- (31) a. *Der Berg vergletscherte zweitausend Jahre lang.
 b. Die Vergletscherung des Berges dauerte zweitausend Jahre.
 c. Es dauerte zweitausend Jahre bis zur Vergletscherung des Bergs.
 d. Die Vergletscherung des Bergs begann vor zweitausend Jahren und jetzt ist er vollständig zu einem Gletscher geworden.
- (32) a. *Der Arm erlahmte zwei Tage lang.
 b. *Die Erlahmung des Arms dauerte zwei Tage lang.
 c. Es dauerte zwei Tage bis zur Erlahmung des Arms
 d. Die Erlahmung des Arms begann vor zwei Tagen und jetzt ist er vollständig lahm geworden.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rglimmen, vergletschern, erlahmen 등은 지속성 시간부사와 결합할 경우 비문법적이 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문법상의 구분은 명사화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Erglimmung이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 dauern과 같은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고 (32b), 이 명사에 의해 지칭되는 시간구간을 간접적이거나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통사적 환경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Vergletscherung은 지속성 동사 dauern의 주어가 될 수 있으며, 시간구간을 간접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Es dauert ... bis zur...와 같은 특정한 통사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Erlahmung의 경우는 dauern의 주어가 될 수 없지만 이 명사가 지칭하는 사건변화가 특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32c,d)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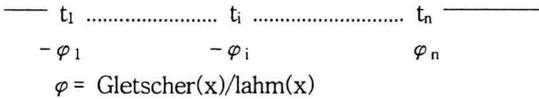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기저동사와는 달리 -ung-후철에 의한 명사화의 경우 이 명사화가 지칭하는 특정한 시간구간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주어진다.

정의 I: 조어어미 -ung은 기저동사가 지칭하는 추상적인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을 통사적으로 가시화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앞 절에서 논의된 vergletschern, erarbeiten 이 지칭하는 사태의 추상적인 시간구간은 -ung-조어에 의해 시간축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구간으로 된다. 이제 (9), (13)에 제시된 vergletschern, erlahmen

의 사태변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

(33) vergletschern/erlahmen



점선으로 표시된 추상적 시간구간은 -ung-조어에 의해 명사화되면 가시적인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을 얻게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내 보자.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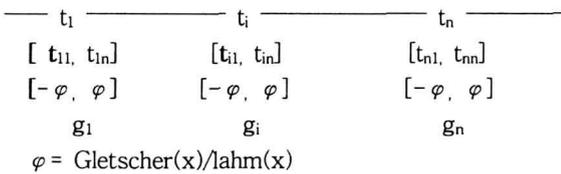


도표 (34)는 초기상태의 하위시간구간 t_1 , 변화과정의 하위시간구간 t_i , 그리고 결과상태의 시간구간 t_n 모두에서 $-\varphi$ 에서 φ 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타당성은 Garey(1957), Kenny(1963), Dowty(1979) 등에 의한 지속성동사의 시간성에 관한 이론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즉 어떤 사태가 t 라는 시간구간에서 지속성 술어동사의 속성으로 표현되면 이 사태는 t 의 모든 하위시간 구간 t' ($t' \subseteq t$)에서 동일한 지속성 술어동사의 속성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text{tanzen}(x)$ 라는 사태가 한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이 한시간이라는 시간구간 내의 모든 하위시간 구간에서 x 는 tanzen 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시간구간 내에서 어떤 대상 x 가 Gletscher가 되는 속성을 갖거나 또는 lahm이 지칭하는 속성을 갖는다면 이러한 사태변화의 과정은 전 시간구간의 매 하위시간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⁷ 이는 대상 x 자체가 변화를 겪는다고 보기보다 x 의 속성이 매 하위 시간구간에서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t_1 이라는 하위시간 구간은 다시금 시점 t_{11} 에서부터 t_{1n} 까지의 시간구간으로서 이 시간구간에서 x 의 속성인 P_1 가 Gletscher가 아니다가 Gletscher가 되는 활동이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 시간구간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x 는 Berg를 지시하는 대상논항이다.).

⁷ 이러한 직관은 모국어화자로서 R. Dietrich(Universität Humboldt), W. Klein(Max Plank Institut für Psycholinguistik), E. Lang(Universität Humboldt) 등에 근거한 것이다.

$$(35) \text{ Vergletscherung}' : = \mathbf{gVergletscherung}(t_1) + \mathbf{gVergletscherung}(t_i) \\ + \dots + \mathbf{gVergletscherung}(t_n)$$

$$\mathbf{gVergletscherung}(t_1): -\text{Gletscher}(P_1(x), t_1) \text{ --> } \text{Gletscher}(P_1(x), t_1)$$

:

$$\mathbf{gVergletscherung}(t_i): -\text{Gletscher}(P_i(x), t_i) \text{ --> } \text{Gletscher}(P_i(x), t_i)$$

:

$$\mathbf{gVergletscherung}(t_n): -\text{Gletscher}(P_n(x), t_n) \text{ --> } \text{Gletscher}(P_n(x), t_n)$$

만일 P_i 가 하위 시간구간 t_i 에서 대상 논항 x 가 갖는 속성 - 예를 들어 산의 표면부분 - 이라고 할 때 *Vergletscherung*의 의미는 함수 f_i 의 총화로 기술된다. 이 함수는 일정한 시간구간 t 에서 산의 표면들이 점차 얼음으로 덮여가는 *Vergletscherung*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수에 의한 의미 기술은 *erglimmen*의 명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rglimmen*으로부터의 명사화 **Erglimmung*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다음의 함수관계로부터 설명된다.

$$(36) \mathbf{gErglimmung}(t_1): -\text{glimmen}(P_1(x), t_1) \text{ --> } \text{glimmen}(P_1(x), t_1)$$

:

?

$$\mathbf{gErglimmung}(t_i): \text{glimmen}(P_i(x), t_i) \text{ --> } \text{glimmen}(P_i(x), t_i)$$

:

?

$$\mathbf{gErglimmung}(t_n): \text{glimmen}(P_n(x), t_n) \text{ --> } \text{glimmen}(P_n(x), t_n)$$

**Erglimmung*의 경우 초기상태의 함수 f_1 를 제외하고 $f_i \dots f_n$ 은 어떠한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함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ung-조어에 의한 명사화가 *erglimm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가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 I에 위배되어 비문법적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정의 I에 따라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가 *Vergletscherung*을 문법적인 명사로 그리고 **Erglimmung*을 비문법적인 명사로 기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Erlahmung*이 문법적이지만 이 명사를 비문법적으로 만드는 (32b)를 보자. 명사구 *Erlahmung des Arms*의 의미기술을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rray}{l}
 ? \\
 (37) \text{ gErlahmung}(t_1): -lahm(P_1(x), t_1) \rightarrow lahm(P_1(x), t_1) \\
 : \\
 ? \\
 \text{gErlahmung}(t_1): -lahm(P_1(x), t_1) \rightarrow lahm(P_1(x), t_1) \\
 : \\
 ? \\
 \text{gErlahmung}(t_n): -lahm(P_n(x), t_n) \rightarrow lahm(P_n(x), t_n)
 \end{array}$$

도표 (37)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위 시간구간 t_i 를 논항으로 취하는 *erglimmen*의 함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위 시간구간에 해당하는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 x 의 속성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 우리는 ‘팔이 마비되다’라는 사태가 일정한 시간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팔’이라는 대상의 개별적인 부분이 매 하위 시간구간에서 차례대로 마비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erblinden* ‘눈이 멀어지다’, *erstarren* ‘몸이 경직되다’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ung-조어에 의해 상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이 확보되더라도 이 시간구간 t 의 매 하위 시간구간 t_i 에서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의 속성이 동질(homogen)의 속성 P_i 로 분할되지 않을 경우 -ung-조어의 의미는 t_i 를 논항으로 하는 함수 값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태의 지속을 시간적으로 한정하는 시간부사, 부가어적인 시간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의 명사화에 관련된 대상논항의 속성을 기술하는 정의를 줄 수 있다.

(38) 정의 II:

만일 명사화에 참여하는 대상논항의 속성이 동질의 속성으로 분할될 수 없다면 이 명사화는 지속성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으며 시간부사, 시간 형용사에 의해서도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정의 II에 의해 많은 -ung-조어들, 예를 들어 *Erblindung*, *Erbleichung*, *Ergrauung*, *Ergrünung*, *Erhärtung*, *Erheiterung*, *Erkrankung*, *Ermattung*, *Ermüdung*, *Errötung*, *Erstarkung*, *Erstarrung*, *Erwachung*, *Erweichung* 등과 같은 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Verarmung*, *Verblassung*, *Verbleichung*, *Vereinsamung*, *Verödung*, *Verrohung*, *Verweiblichung*, *Verweltlichung*, *Verstummung*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Ablassung*, *Abkühlung*, *Abmagerung*, *Abmattung*, *Abstumpfung* 등과 같은 ab-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및 *Ausbleichung*, *Ausgärung*, *Ausheilung*, *Auskühlung*, *Ausödung*, *Ausreifung*, *Austrockung* 등으로부터 유도된 명사들이 지속성 동사

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고 동시에 특정한 시간구간을 한정하는 시간부사나 부가어적으로 사용된 시간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동사로부터의 명사화에 있어서 논항의 속성이 어떻게 기저동사가 지칭하는 사태변화에 대응하는가를 고찰하여 보았다.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저동사는 독일어에서는 전철동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사태변화는 우리의 직관과는 반대로 특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점으로 나타날 뿐 구체적인 시간구간을 통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전철동사의 어간이 자동사인 경우와 명사 혹은 형용사인 경우 전자의 사태변화는 결과상태의 사태와 일치하고 후자의 사태변화는 초기상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초기상태, 변화 결과상태를 전철동사가 특정한 시간구간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값으로 정하였으며 이 함수 값의 총화가 전철동사의 의미로서 제시되었다.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은 조어어미 -ung에 의해 명사화 될 경우 지속성 동사나, 시간구간을 한계 짓는 시간부사, 부가어적으로 사용되는 시간 형용사에 의해 가시적인 시간구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가시적인 시간구간을 하위 구분할 경우 대상의미역을 갖는 명사화의 논항은 매 하위 시간구간에서 자신의 속성들이 기저동사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그대로 겪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논항의 속성들을 하위 시간구간에서 일어나는 사태변화에 따라 분해할 수 있을 경우 우리는 해당 명사화가 지속성 동사, 지속성 시간부사 및 부가어적인 시간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논항의 속성을 분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기술할 수가 없고 다만 그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로서 독일 전통문법에서 제시되었던 명사화에 있어서의 변화 (= Nomina actionis)와 결과 (= Nomina acti)가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설명될 수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 신수송 (1999) '독일어 동사의 동작태(Aktionsart)와 사건구조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어학연구 35.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Bennet, M./B. Partee. (1978) *Toward of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D.

Reidel.

- Dowty, D. (1991) 'Thematic proto 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Vol. 67, Nr. 3
- Ehrich, V.-E. (1977) *Zur Syntax und Semantik von Substantivierung im Deutschen*, Kronberg, Scriptor Verlag.
- Essau, H. (1973) *Nominalization and Complementation in Modern German*, Amsterdam/London,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Fleischer, W. (1969)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Verlag Enzyklopedie.
- Koo, Myung-Chul (1997) *Kausativ und Passiv im Deutschen*, Peter Lang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1624).
- Kenny, A.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lein, W. (1998) 'An Analysis of the German Perfekt' ms.
- Klein, W. (1999) 'Wie sich das deutsche Perfekt zusammensetzt?',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113.
- Kripka, M. (1989) *Nominalreferenz und Zeitkonstitution*. München: Fink.
- Lakoff G. (1969) 'On Generative Semantics,' in Jakobovitz/Steinberg (hrsg.) *Semantics*.
- Lehmann, Ch. (1991) 'Grammaticalization and Related Changes in Contemporary German,' in Traugott, E.C./B. Heine, eds., *Approach to Grammaticalization*, Vol. II. Amsterdam/Philadelphia
- Mater, E. (1967) *Rückläufige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 Paul, H. (1920) *Deutsche Grammatik*. Halle a.S., Verlag von Max Niemeyer.
- Pustejovsky, J. (1991a)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 Pustejovsky, J. (1991b) 'The Generative Lexic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7.
- Soo-Song Shin (1976) 'Probleme der Nominalisierung auf -er im Rahmen der Transformationsgrammatik,' *Linguistische Berichte* 43, Braunschweig 1976, Germany
- Soo-Song Shin (1988) 'Zur leeren Kategorie des Deutschen,'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7.1., Vandenhoeck und Ruprecht, Germany
- Soo-Song Shin (2000a) 'Some derivational Constraints for German -ung-nominals,' *Language Research* Vol. 36. No. 2. Seoul National University
- Soo-Song Shin (2000b) 'Concerning the German -ung-nominals denoting

- events' to appear in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2001)
-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 *The Philosophical Review* LXVI.
- Vendler, Z. (1967) 'Facts and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J. Zwarts (1992) 'Time and Space in conceptual and logical semantics,' *Linguistics* 30.

ABSTRACT

Temporal Properties of the Arguments in the German Nominalization

Soo-song Shin

This paper treats the temporal properties of the arguments which undergo the changes denoted by the base verbs in the process of German nominalization. The base verbs denoting the changes of the state of affairs are very often the prefix verbs. Syntactically they do not denote any specific time intervals and appear just as points of time, which is certainly against our intuition. Thus some virtual interval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encompass the changes of state of affairs indicated by the base verbs. These virtual intervals become real intervals through the nominalization processes, especially the nominalizing with the suffix -ung. The change from the virtual intervals to the real intervals could be easily verified by the possibility of syntactic modifications, for instances, modification of the -ung-nominals by the durative temporal adverbials, attributive (durative) temporal adjectives, and the combinations with the durative predicates. There are many base verbs that allow the derivation of -ung-nominals but never allow the syntactic modification of -ung-nominals by durative temporal adverbs or adjectives. This fact is due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operties of the arguments are not changed properly by the processes or actions of the base verbs. In this case the -ung-nominals denote only the

results of the changes denoted by the base verbs. Thus the theory of the nominalization developed in this paper explains the phenomena of the Nomen actionis and Nomen acti in the traditional German grammar appropriately.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자우편 : ssshin@plaza.snu.ac.kr